

의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 성과 함께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사위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장차 있을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죽어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불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멸망에 처해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심판을 면함 받고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란, 이렇듯 장차 죄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심판을 면함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롯의 사위들과 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한 자를 예표 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 떨어진 불덩이로 인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서 소돔 성을 바라본 시점은, 소알 성에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즉 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롯의 아내가 소알 성을 향해 한시바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돔 성을 돌아본 것은, 그녀가 소돔에서의 안락한 삶과 값비싼 재물, 화려한 의복, 소돔에서 누리던 사치와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에게 우상인 것이고, 그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눅 17:32) "롯의 처를 생각하라" 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가족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2024. 9. 16 ~ 18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추석 가정예배 순서

입례 사 회 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찬 송 (168장/새 180장) 다 같 이

대표기도 말 은 이
 (가족 중 한 명이 담당하고, 마땅치 않으면 사회자가 담당)

성경봉독 (창세기 19장 24절~26절) 다 같 이

-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설 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사 회 자

찬 송 (102장/새 94장) 다 같 이

기 도 다 같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 사회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 같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은 가족이 모여서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을 멸하시기에 앞서 천사 둘을 보내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의인 롯의 가족들을 대피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하실 것임을 알리자, 롯은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무렵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천사에게 자신들을 근처의 작은 성읍인 소알 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천사는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롯이 소알 성에 들어간 후에야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소알 성으로 가던 중에,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과 롯의 두 딸은 무사히 소알 성에 도착하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롯과 두 딸들이 소돔에 임할 심판을 피한 것은 성도의 휴거를 예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두 딸이 소알 성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향을 쏟으셨습니다. 롯과 두 딸이 소알 성으로 대피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기에 앞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참된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인 것입니다. 휴거로 인해, 참된 성도들은 환란을 면함 받고, 이 세상에 남겨진 이들만이 큰 환란의 때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인 것입니다.

둘째로, 롯의 경고를 무시한 사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를 예표 합니다. 롯